

4 뉴스

상담사당 재학생 수 약 1,334명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양 캠퍼스(양캠)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담 지연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상담센터의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1회,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30회 이상 상담을 받은 A 씨는 “상담을 2년 이상 받았는데 친절하고 좋았다”면서도 “대기 기간이 오래 걸려 그 동안 회당 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유료 상담 어플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국제캠에서 상담을 받은 B 씨 역시 오랜 대기기에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B 씨는 8월 중순에 상담을 신청했지만, 10월에야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B 씨는 “(상담 신청 당시에는) 급해서 신청했는데 신청부터 상담까지 단계가 다 따로 진행돼 검사할 때와 상담을 받을 때의 제가 달라졌다”며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지나며) 검사가 무의미해졌다”고 전했다.

서울캠 심리상담센터 상담사는 전임 상담사 2명, 객원 상담사 6명, 행정 조교 3명으로 이뤄져 있다. 국제캠은 전임 상담사 4명, 객원 상담사 6명이다. 전임 상담사와 객원 상담사는 개인 상담을 진행하며 전임 상담원은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해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대학	상담센터 인력	재학생(학부)	상담센터 인력 1인당 재학생 수
경희대학교(서울)	11	14,673	1,334
경희대학교(국제)	10	11,325	1,133
고려대학교	18	19,597	1,089
서강대학교	29	7,974	275
성균관대학교	25	18,298	732
연세대학교	14	19,239	1,374
이화여자대학교	27	15,281	565
중앙대학교	14	18,110	1,294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심리상담센터 인력 및 상담센터 인력 1인당 재학생 수
각 대학의 상담 인력은 대학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함.

를 담당한다. 서울캠 심리상담센터 김미경 과장은 “개인 상담의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을 생각했을 때 (상담사 1명이)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6명”이라고 설명했다.

심리상담센터 상담사 1명이 맡는 학생 수는 서울캠 약 1,334명, 국제캠 약 1,133명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2월 제시한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의 상담 인력인 재학생 1,000명당 1명 수준의 상담 인력을 넘어서 수치다. 대학원생 까지 포함한다면 서울캠과 국제캠은 각각 상담사 1인당 약 1,858명, 약 1,397명을 맡는다.

이는 서울의 타 사립대학교도 비교되는 수치다. 서울권 사립대학 중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

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중 상담사 1명이 맡는 재학생 수는 약 275명에서 약 1,374명까지 달했다. 이 중 3곳은 심리상담센터 인력 1명이 맡는 재학생 수가 1,000명을 넘지 않았다.

서울캠과 재학생 수가 비슷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심리상담센터 인력 1인당 재학생 수는 565명이다.

이마저도 작년 대비 나아진 상황이다. 국제캠 심리상담센터의 경우 작년까지 전임 상담사가 1~2명이었지만, 올해 4명의 전임 상담사가 충원됐다. 국제캠 심리상담센터 원가람 실장은 “인력은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 실장은 상담 지연의 이유로 공간 문제를 꼽았다. 원 실장은

“학생들의 상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상담실 개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 실장은 “(공사를) 요청해서 공간 공사를 하려고 한다”며 “시스템, 인력, 공간 등 질적인 부분을 많은 학생이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에는 상담 조직 명칭 통일과 상담사 인력 충원을 이유로 양캠 심리상담센터가 독립 부서로 승격된 바 있다. 김미경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교육부와 대학에서 지속해서 대학(원)생 마음 건강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뇌출혈 유학생에 장학금

이진구 기자 jk6348@khu.ac.kr

【국제】 지난달 21일 멀티미디어 교육관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테크노경영대학원 중문 MBA 과정에 재학 중인 천 하오원(Chen Haowen, 글로벌경영학 2기) 씨는 지난 10월 21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당시 자취방에 쓰러져있던 천 씨는 근처에 살던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을 수 있었다.

다만 3,4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문제였다. 이 소식을 들은 동기, 교수, 교직원 등은 모금 운동을 벌여 800만 원을 모았다. 이에 테크노경영대학원이 650만 원을 더해 총 1,4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원활한 치료와 학업 복귀를 위해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천 씨의 모친이 대신 참석해 장학금을 받았다. 이날 모친은 외부 언론을 통해 “워낙 건강했던 아들이라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아들이 회복한 것만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장학금까지 받은 건 또 다른 기적”이라며 “아들을 생각해주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천 씨는 지난달 29일 퇴원해 재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우리 시는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귀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공고일('22.11.23.) 기준 본인 혹은 직계존속의 주소가 울산인 대학교 재학(휴학)생
지원범위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신규대출분의 2022년도 하반기 발생이자
신청기간 2022. 11. 23.(수) 09:00 ~ 12. 30.(금) 18:00
접수방법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제 1회 경희대학교 고등교육연구포럼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안 모색 메타버스

일시: 2022년 12월 8일(목요일) 14:00~17:00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중앙도서관 1층 우측)

일시

2022년 12월 8일(목요일)

14:00~17:00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
(중앙도서관 1층 우측)

시간

14:00~14:10 등록 및 진행사회: 강성준 (교육혁신단장)

14:10~14:20 개회사: 강성준

축사: 권오병 (경희대 학무부총장)

메타버스 고등교육 생태계

발표: 최원재 (경희대)

고등교육에서의 메타버스 구현 실제

발표: 임태형 (전남대)

휴식시간

메타버스와 에듀테크의 미래

발표: 강정우 (한리홀딩스)

메타버스 기반 수업의 실재감

발표: 이성아 (호남대)

폐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본관 316호
Tel: 02) 961-2391~2 Fax: 02) 961-2393 E-mail: educate@khu.ac.kr